

#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시대 개막

제도 시행 33년 만에  
공단, 500만번째 수급자에  
수급증서·기념품 전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2020년 4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500만 명을 돌파해 제도시행 33년 만에 수급자 500만 시대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매일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2003년 100만 명을 넘은 이후 2007년 200만 명, 2012년 300만 명, 2016년 400만 명을 넘어 제도시행 33년 만에 500만 명을 돌파한 것이다. 수급자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늘어나는데 4년 8개월이 걸리는데 비해, 500만 명 돌파까지는 3년 6개월이 소요됐으며, 베이비붐 세대 퇴직 등으로 5년 후에는 700만 명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이러한 수급자의 증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중추적인 노후보장수단으로서 전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일 연금수급자 5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500만 번째 수급자'로 선정된 명정희(62) 씨에게 국민연금 수급증서 및 기념품을 전달했다.

공단은 지난 20일 연금수급자 500만 명 돌파를 기념해 '500만 번째 수급자'로 선정된 명정희(62) 씨에게 국민연금 수급증서 및 기념품을 전달했다. 명 씨는 1988년부터 가입해 총 32년 3개월 동안 4,817만 원을 납부했으며, 매월 124만 원의 연금을

평생 동안 받게 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62세 여자가 기대여명인 87.6세까지 연금을 받을 경우 수령연금액은 총3억8,000만원으로 본인 납부금액의 7.9배에 달한다. 명 씨는 수급증서 전달식에서 "쉬지 않고 국민연금 납부하길 잘 했

다.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한 것도 연금액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젊은 세대들이 가능하면 일찍부터 연금에 가입해서 노후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아들, 딸, 며느리를 포함해 주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박정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연 것은 국민의 신뢰와 성원 덕분이며, 앞으로도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한해 동안 496만 명에게 21조7,000억원을 연금으로 지급했다.

월 연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수급자는 27만 명에 달했으며, 200만 원 이상 수급자도 98만명이었다.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67만 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92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364만 원이며, 개인 최고 연금액은 212만 원에 달했다. /김윤상 기자

## 막바지 농작물 저온피해 우려

농진청, 꽃샘추위 따라 고추·감자 등 노지작물서

제4종 복합비료 앞에 뿌려줘 생육 나아지도록 해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23일 본격적인 영동철을 맞아 막바지 꽃샘추위를 우려하며 고추·감자·배추·옥수수·보리·밀 등 노지 작물과 과수, 무기는 하우스 작물에서 저온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철저한 사전 관리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의하면, 오늘까지 경기동부와 강원영서, 전라내륙에서 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어 서리 발생 등 저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부지역에서 정식 준비가 한창인 고추는 지역별로 늦서리 피해가 없는 5월 상순경 안정적으로 이주 심기를 해야 한다.

이미 본 밭에 정식된 고추, 배추, 감자, 옥수수 등 노지에 있는 작물에서 저온피해가 발생하면 제4종 복합비료를 앞에 뿌려줘 생육이 나아지도록 한다.

남부지방 밀·보리 재배지에서는 출수가 이후에 붉은곰팡이병 감염 피해가 우려되므로 포장을 잘 관찰해 사전

방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과수는 최근 저온 피해 이후 안정적인 결실량 확보를 위해 꽃 따주기(적화) 작업을 생각하고, 착과가 확인 된 이후에 열매따주기(적과)를 하도록 한다. 과수는 착과량 정도에 따라 나무의 수세에 영향을 주고 다음해 꽃눈 형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나무의 세력에 따라 비료 주는 양을 조절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무기는 시설에서 재배되는 작물(오이, 토마토 등)과 중부지역 육묘 후기에 있는 고추모종이 저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해야 한다. 밤에는 시설하우스의 문을 닫고 비닐이나 부직포 등으로 보온을 해주고 반대로 낮에는 큰 일교차로 인해 시설 내 온도가 30℃가 넘어가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 주어야 한다.

전충섭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은 "4월은 기상변동이 심해 농작물 저온 피해가 많은 시기이므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상의 '전북도내 상장법인 28개사'

전년대비 3개사 ↑... 익산, 9곳으로 가장 많아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가 지난 1일 기준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상장법인 수를 조사한 결과, 전북도 내 상장법인은 총 28개사로 조사됐다.

상장법인 중 코스피 상장법인이 11개사, 코스닥 상장법인 15개사, 코넥스 상장법인 2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전국 2,359개의 상장법인 중 1.2%에 해당되는 수치로 서울 948개사, 경기 649개사, 충남 94개사, 경남 90개사, 인천 83개사임을 미루어 볼 때 지역적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와 비교하면 전북지역 전체 상장법인 수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기업수가 각각 2개씩 증가했으며, 코넥스 상장기업이 1개 감소해 전년대비 총 3개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전체 상장법인 수는 지난해 대비 87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자치단체별로는 익산시에 상장기업이 9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군산시 7개사, 전주시·완주군 각각 4개사,

정읍시 2개사, 장수군·부안군 각각 1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익산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전자·바이오 소재 사업을 영위하는 (주)두산솔루션과 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두산퓨얼셀(주)이 (주)두산으로부터 분할 상장되고, 디스플레이용 광학 필름을 생산하는 오성첨단소재(주)가 지난 3월 충남 아산시에서 익산시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상장기업이 3개 증가했다.

군산시는 에너지플랜트 전문기업(주)강원이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성에서 군산시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면서 상장기업 1개가 증가했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의 상장 유무에 따라 그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상장 여부는 자금유동성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 면에서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전라북도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보다 많이 상장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역기업에 대한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NH농협손보 전북총국

발작물·농작물재해보험 판매

NH농협손해보험 전북지역총국(총국장 강희상)은 2020년 발작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고추는 판매중이며, 인삼·밤·대추·고구마·옥수수·감귤 등 10종은 27일부터 판매된다.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은 올해 살구, 호두, 보리, 쌀, 시금치 5개 품목을 신규 도입해 67개 품목으로 보험대상을 확대했으며, 원예시설 작물 비례보상 도입, 인삼 판매기간 추가에 따른 보장 확대 등 보장수준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을 보장해 주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30~45%를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농가에서는 시군에 따라 5~20%를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특히, 작년에는 폭염과 태풍, 이상저온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농가 피해가 극심했으며, 전북 내에서도 2만 1,588농가에서 사고가 발생해 797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경영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농어촌공 전북본부

영농대비 지하수시설물 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10일부터 이날 6일까지 공사에서 관리하는 지하수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관정 258개소, 집수정 2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정상 작동 여부, 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현지 점검 및 확인을 통해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예방활동 차원에서 진행됐다.

또한 전북본부는 봄철 강수량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울 한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재난대책과 지하수시설물을 정비하여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본부는 지하수 이용자의 가내에 부흥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하수 기술지원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23일 코로나19 시대 장기화에 따른 전북 농식품기업 위기 극복 및 향후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 코로나19 장기화 도내 농식품기업 온라인 판로 확대

전북 생진원,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기업 간담회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23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전북 농식품기업 위기 극복 및 향후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 농식품기업의 코로나 19 위기극복 및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의 참바다영어조합법인 김중화 대표, 만선영어조합법인 차호식 대표, 남원의 지리산처럼 정정은 대표, 익산의 (주)참조아 황은경 대표와 전북생진원 김동수 원장, 이은미 본부장 및 마케팅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매출증감 추이, 식

품소비 트렌드와 온라인 마케팅 시장 변화에 따른 필요한 지원내용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에 미숙한 기업을 위한 온라인 유통 밴드 및 마케팅 전문가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 지원,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 구성 및 패키지 개발 등 컨설팅 지원, 온라인 마케팅에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제품 홍보, 디자인, 웹 소개 자료 등)을 비롯해 이미 온라인 마케팅에 진출해 있는 전북 농식품기업을 위한 공동 프로모션 개최와 택배비 및 흡수필 진출 지원, 유명 인물투어서 활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 전북도-무역협회 전북본부, 수출특송비 지원

전북도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은미)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여행이 운항이 감소하면서 해외 수출 발송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익산시 소재 한 의류업체는 해외 바이어들에게부터 샘플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계속 받았지만 기존에 이용하던 우정사업본부의 국제특송(EMS)이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되며 판관을 겪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외국계 특송업

체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했으나 비용이 몇 배로 늘어 원활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북본부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수 있음을 접수하고 전북도에 건의해, 전 북도에 '2020 수출용 샘플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 도내 기업이 외국계 국제특송 서비스 이용시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됐다. 전북도의 지원으로 수

출기업들은 EMS 이용제한에 따른 운송부담을 줄게 됐다.

이강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애로를 겪고 있는 무역업계 건의에 화답해준 전북도청에 감사드린다"며 "무역협회는 특송업체와 계약을 맺어 비용의 30~40% 할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이번 지원사업으로 전북 중소기업은 추가적인 할인이 가능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장기요 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이 23일, 익산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하림(대표 박길연)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코로나19 피해 지역기업과 함께 극복'

장기요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경영 애로사항 청취

장기요 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이 소상공인에 이어 지역 대표기업 현장방문에 나서며 전방위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나서고 있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장 본부장은 23일, 익산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내 1위 육계가공업체인 (주)하림(대표 박길연)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여신·금융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길연 하림대표는 "최근 1~2년간 육계공급과잉으로 시세가 하락하였는데,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쳐 경영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며 "지역내 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요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우리지역 기업의 매출·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져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다"면서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역 기업의 위기극복을 함께 하기 위해 금융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기업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비상금융지원위원회'를 운영중이며,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일자리창출 및 신성장기업대출 ▲지역자산(IP)담보대출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 등 다양한 금융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김윤상 기자